

· 타문화권 환자 진료(페루2편)

KOICA 9기 국제협력의사 **유 병 옥**
현재 서울 시립 병원 근무

가장 날카롭고 본질을 꿰뚫는 핵심은 도착 즉시, 즉각 얻어진다고 19세기 탐험가 리처드 프랜시스 버튼이 말했었던가. 잉카의 땅을 딛는 순간 나는 생각했다. 이 새로운 땅에서의 시간들이 인생에 있어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 같다고 말이다. 직업을 통해 남을 도울 수 있는 행운을 가진 이후 적지 않은 봉사지를 다녔었기에 이제 익숙해 질 때도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리마 특유의 비릿한 공기를 감지하며 새삼스런 설레임에 휩싸였다. 이상하게도 과연, 새로운 땅은 새로운 힘을 주는 듯 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이들에게 남을 것인가. 만나지는 많은 사람들과 눈인사를 나누며 군중 속으로 미끄러지듯 들어 오면서 나는 이들과 이렇듯, 물 흐르듯 함께할 수 있게 되길 바랐다.

내가 터를 내리게 될 곳은 페루와 에콰도르 국경에 위치한 지방 도시로써 한국 국제협력단에서 새로운 병원을 지어주기로 결정한 지역이었다. 기존 보건소 규모의 일차 병원에 대한 증축 부분을 한국 국제협력단에서 맡게 된 것인데 완성이 되면 본 도시는 물론 인근 지방의 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었다. 이에 지역 사회나 병원 내부에서도 이미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한국정부에 감사를 표하고 있었다. 가시적으로 이루

어지는 지원은 그 한계가 있다. 앞서 잠시 언급했던 다른 나라, 다른 오지를 다니며 나는 선진국에서 지원된 물자들이 제대로 소용되지 못하고 창고에 놓인 채 먼지만 쌓여가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는데 최소한 한국 국제협력단을 통해 지원되는 여러 형태의 재화와 용역은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직접 온다는 마음을 갖고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루어질 대형규모의 병원이나 최신식 기자재보다 이들에게 내가 보여줄 수 있고,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어려운 여건과 상황을 핑계대지 않는 한국인, 한국 정부기관 이리라. 객지생활의 여색함도, 세계적 문화유산에 대한 이끌림도 병원 개원 이후의 일들로 모두 미뤄두었다. 벽돌이 쌓여갈수록 한국-페루 제 5 우정병원에 갖드는 페루인들의 기대도 커져갔다.

동시에 병원내부에서는 한국인 의사의 세심한 손길을 기다리는 환자를 만났다. 분유를 먹일 형편이 되지 않는 가정에 세쌍둥이가 태어나 지역사회의 기쁨과 걱정이 교차할 때도 그들이 떠올리는 의료진은 한국인이었고, 거동이 불가능한 노부모에 대한 진료가 걱정될 때 생각나는 사람도 발이 가벼운 한국인 의사였다. 나의 진료를 받기 위해 새벽부터 몇 시간을 걸어온 환자를 대할 때 먼 내가 이 자리에서 이들의 친구가, 가족이 될 수 있음에 감사했다. 특

이하계도 전직 대통령의 한 사람으로 일본계 페루인을 갖고 있는 이 국민들은, 또한 중국인에 대해서는 돈 많은 사업가란 강인한 인상을 갖고 있었다. 그 가운데 한국, 한국인이 서야할 자리는 어디일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닌 한국이란 나라로부터의 순수한 우호와 협력은 작고 넓은 나의 진료실에서 빛을 발할 터였다.

현지 의료진과의 우호적 관계도 업무의 연속이다. 사람을 잃는다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었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업무형태를 최대한으로 존중하며 봉사자만의 독자적 영역을 펼치는 일엔 균형감이 필요했다.

생명을 다루는 의료분야의 봉사란 여타의 분야와 마찬가지로 선진 전문지식 없이는 현지인의 신뢰와 호응을 얻어내기 힘들다. 이들에게 실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신 지식은 현지 의료 인력에 대한 정기적, 비정기적 강의를 통해 전달하였다. “그들 스스로를 움직이게 하라.” 교육이야말로 그들 스스로를 움직이게 하는 기본이라 생각하며 말이다.

한국-페루 제 5 우정병원이 문을 열고 더 많은 환자를 더 편안한 장소에서 진료할 수 있게 되면서 본 병원은 더욱 지역 주민에게 손꼽고 고마운 병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새로 증축된 부분으로 인하여 병원 등급도 상향 조정되어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실과 수술실을 갖게 되었다. 서민 계층에게 유독 담이 높았던 페루 의료 체계가 한국정부의 지원으로 일정부분 낮아졌다고 감히 생각해도 될 것인지 모르겠다. 현재 한국인 의사 2명을 비롯, 간호 분야, 임상병리 분야, 방사선 분야등 새로운 분야에 속속 봉사단원이 배치되면서 더욱 그 협력의 밀도를 높여가고 있다.



한페 우정병원에서 첫 세 쌍둥이의 출산을 축하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산모와 아이들을 위하여 대부가 되어 주었음 (2005년 1월)



2004년 12월 17일 병원 개원식 인터뷰

페루 중환자 학회에 초대 연자로 쿠바,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페루 의대교수들과 강의 하였음. (2004년 8월)



한페 우정병원에서 첫 한국인 의사 수술 집도 기념 사진(2005년 1월)

아직 이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지금, 이 시간들이 나의 인생에 또한 나의 시간들이 그들의 인생에 어떤 의미로 자리 잡게 될지 말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그들에겐 한국이라는 고마운 나라에서 온 친구가 생겼다는 것이고 나에게 제 2의 조국이 생겼다는 사실이다. 한국

과 페루, 지구상의 가깝지 않은 두 나라사이에는 한국-페루 제 5 우정병원이라는 따뜻한 이름의 징검다리가 자리 잡고 오늘도 양국의 의료진이 협력하여 생명에 대한 경외를 실천하고 있다.